매주 월요일 만나는 시사교습소 시사종이 땡땡땡(이하 시종땡) 수업종이 오늘(13일)도 오후 5시 유튜브채널 한겨레TV에서 울립니다.오늘 시종땡 1교시에선 ‘폭주’ 김준일 선생님이 출연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3가지 사건의 핵심 의혹을 총정리합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사과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야당에서는 여기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태도입니다. 공격에 나선 민주당은 무엇을 털어야 하고, 수비에 나선 김 여사는 무엇을 털어내야 하는지 따져봅니다.2교시에는 김민하 선생님이 나와 ‘여의도 신호등’ 수업을 진행합니다. 친윤 일색이란 평가를 받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당직 인선, 추미애 당선인으로 힘이 쏠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독도로 향하는 조국혁신당 움직임까지 여의도 주간 이슈를 총정리해봅니다.한겨레TV ‘시사종이 땡땡땡’ 라이브방송 보러 가기 https://youtube.com/live/gAGLhIPp1aM제작진총괄 프로듀서 : 이경주프로듀서 : 김도성작가 : 박연신행정: 김양임타이틀 : 문석진기술: 박성영음향 : 장지남카메라 : 권영진 장승호자막그래픽디자인: 김수경섬네일: 정현선연출 : 김현정 (hope0219@hani.co.kr) 제작: 한겨레TV